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열한 번째 “영상택배” 안내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외국인과 아시아 경제공동체



지난 주 보내드린 전주대 변은진 교수의 “한반도 분단, 통일의 문제와 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한 온라인 문화강좌에 이어 이번 주에는 전주대 김윤희 교수가 진행하는 “한국의 디아스포라 - 외국인과 아시아공동체” 강연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세느강은 파리를 동서로 나눈다(2)

- 파리 세느강의 서쪽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몽마르트 언덕 아래서 바라 본 사크레 퀴르 성당

지난 호에서는 몽마르트 언덕 주변을 무명화가들의 애환이 서린 곳 그리고 향락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자한다. 물론 몽마르트는 언덕 아래 환경이 다소 향락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만, 파리 시민들에게는 성소(聖所)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왜냐면 그것은 해발 130m의 언덕 정상에 있는 사크레 퀴르 성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의 이 성당은 백색 대리석으로 인해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눈이 부시게 하얗게 빛나고 있어서 올려다보면 다분히 성지라는 인상을 줄만도 하다.

이 성당이 건축된 것은 1870년에 발발된 프러시아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프러시아는 1701년 브란덴부르크선제후(選帝侯) 프리드리히 3세가 세운 왕국인데, 독일북부지역과 폴란드 서부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1870년 당시 오스트리아를 대항하는 강국이었다. 그러한 여세를 몰아 프랑스를 넘보고 프랑스를 침공하였다. 그로 인해 파리 시민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파리 기베르 대주교가 파리 시민 특히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성당 건축을 주창하여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건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이유는 몽마르트 언덕의 지반이 약한 관계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법을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크레 퀴르 성당은 4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 완공 되었다.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는 성인 생 드니(Saint-Denis)와 관련된 것이다. 생 드니는 파리 수호성인으로서 초대 파리 주교였는데, 서기 258년 몽마르트 언덕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참수 당한 자신의 머리를 들고 6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내용으로 인해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을 성지로 여기며, 하얗게 빛나는 성당을 보며 영적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



사크레 퀴르 성당 앞 계단, 이곳에 앉으면 파리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성당까지 가려면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한다.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올려 메고 킁킁대며 올라갔는데, 언덕 정상에 가보니 성당 뒤쪽에 자전거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를 두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가보다. 자전거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참말로 왜 고생이여~'하며 내려 올 때는 그 뒷길로 해서 수월하게 파리 시내로 내려왔다.

물론 걷기가 힘든 사람은 몽마르트 언덕 좌측(사진 참조)에 있는 계단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 같은 리프트카를 이용하면 쉽게 사크레 퀴르 성당까지 갈 수 있다. 아무튼 몽마르트 언덕은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성소로서의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몽마르트 좌측 경치인데, 사진에 보이는 계단으로 걸어올라 갈 수도 있고 오른쪽 하얀 철책 안으로는 리프트카가 운행되고 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불산 율필암과 묘적암> 다섯 번째 이야기 “꽃으로 피어난 율필암(1)”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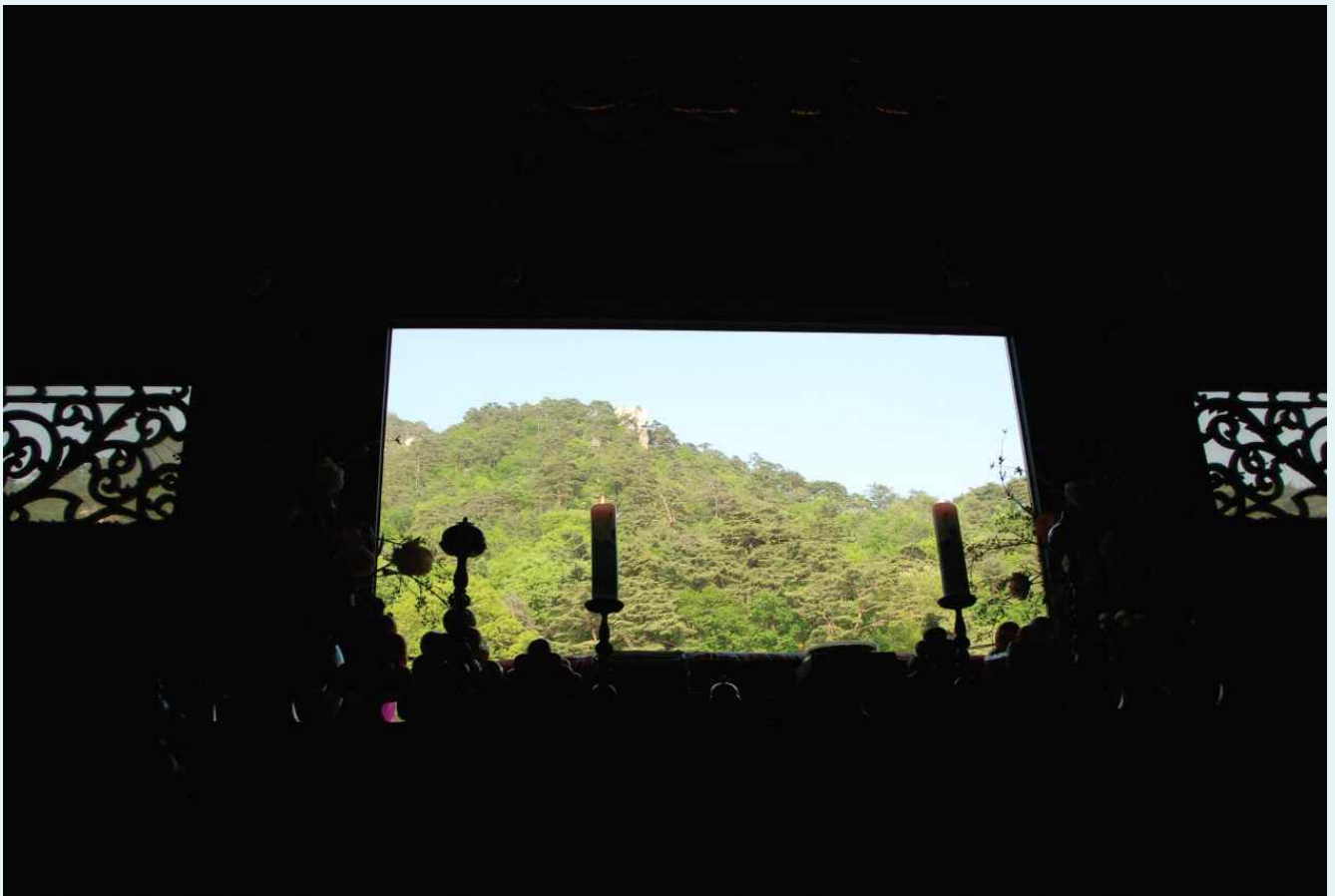


대승사 율필암 | 오늘날 비구니들의 수행도량으로 유명해진 암자다. 화엄세계에 들어선 양, 주변이 온통 꽃 천지다.

옛날 원효와 의상스님이 사불산의 화장사와 미면사에서 각각 수도할 때에, 의상스님의 이복동생이었던 율필거사가 지금의 율필암 자리에 토굴을 짓고 살면서 함께 수행에 임하였다. 이 인연으로 율필암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대승사 산내 암자인 윤�필암은 1380년(고려 우왕6)에 각관覺寬스님이 창건했다고 하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윤�필암에 관한 자세한 사정과 내막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조선 중기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보수가 이루어지다가, 1885년 고종의 명을 받은 창명滄溟스님이 다시 중건을 해, 오늘날까지 사세가 이어져 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 모든 전각을 새로 일군 다음, 늘 30명가량 되는 비구니 스님들이 하안거와 동안거에 정진하도록 이바지하는 암자로 거듭났다.

경내로 드니, 이곳 역시 초파일 준비로 한창이다. 법당 앞에는 줄마다 꽃등을 달았고 사람들이 부산하다. 방문객들도 많다. 연등 아래로 고개를 숙이며 법당 앞의 마당을 가로질러 서쪽 벼랑 아래에 선 사불전으로 오른다. 계단 옆은 온통 영산홍으로 들어찼다.



사불전과 사불바위 | 사불전 내부에서 바라보는 하늘 아래 사불바위는 언제나 경외심과 신심을 자아낸다. 향불 냄새가 그윽하다.

이곳 사불전에서는 부처님을 따로 모시지 않는다. 진신사리를 모신 여느 법당처럼 통유리를 전면에 설치해서 앞산의 사불바위를 경배한다. 하늘이 내려 주신 부처님 상像을 직접 모시는 곳이다.

이곳에 앉아 사불바위를 올려다보니, 옆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감흥이 인다. 여기서는 액자로 꾸민 풍경화 속의 바위처럼 보이는데, 산꼭대기에 버티고 선 자취가 한층 의연하고 신비롭다. 뒤따라 들어온 참배객 서너 명도 사불바위를 향해 엄숙하게 머리를 조아린다. 저분들의 부처님은 저기 저곳에 계시지만, 내 마음 속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

사불전 앞쪽 난간에서 사불바위를 다시 우러러본다. 푸른 하늘을 등진 오늘의 사불바위는 1,500년의 세월 속에서 당당한 모습을 잃지않았다. 궂은 날에도, 구중중한 날에도, 비바람 치는 날에도, 눈보라 휘날리는 날에도, 안개에 뒤덮인 날에도 언제나 저렇게 변함없이 서있었을 사불바위다. 오늘을 사는 내가 잠시 스쳐가는 순간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윤�필암의 백미는 역시 이 사불전이다. 사불전은 수려한 정기가 깃든 탁월한 자리다. 늘 서기瑞氣가 감도는 밝고 환한 곳으로 아주 뛰어난 수행처다. 아쉽게도 법당 뒤편의 선원禪院은 골짜기를 차지한 형국이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 수행에 매진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법력으로 인해, 윤�필암은 우리나라 3대 비구니선 방의 하나로 꼽힌다.

다음 주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여섯 번째 이야기 “꽃으로 피어난 윤�필암(2)”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